

‘지평선 위 달 아래’…빛고을 예술, 몽골과 만나다

오는 20일까지 제1회 울란바토르비엔날레



몽골 울란바토르가 광주 작가들의 참여와 함께 국제 현대미술의 새로운 무대가 된다.

‘지평선 위 달 아래 (On the Horizon, Under the Moon)’를 주제로 열리는 제1회 울란바토르비엔날레가 5월부터 20일까지 울란바토르 시내 전역에서 펼쳐진다.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을 맞아 마련된 비엔날레로, 한국 대표로 초청된 광주 예술가들과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비엔날레 제목은 몽골 시인이 고향 고비사막과 어머니를 떠올리며 쓴 시에서 차용된 문구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평선을 바라보지만 같은 달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장소와 정체성, 고향에 대한 예술적 사유를 이끌어낸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한국·몽골 패밀리온 ‘달 가까이 (Close to the Moon)’ 전시다.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IVCAA)와 몽골 불루&선 현대미술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광주 작

가 임용현·김상연·방우송·김유홍이 참여한다. 전시는 울란바토르 자연사박물관과 킹볼룸 두 곳에서 열리며, 몽골 작가들과 협업해 미디어 아트와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연계행사로는 한국과 몽골 4개 예술단체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전시 ‘무지개 다리 (Rainbow Bridge)’가 마련됐다.

광주에서는 정영창·류현자·이계하·황경숙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몽골에서는 현대미술단체 ‘블루&선’, 청년작가 그룹 ‘새아침’, 세계여성미술가협회 몽골지부 소속 작가 20명이 함께한다. 전시는 7일부터 1

2일까지 몽골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된다.

8일부터 20일까지 칭기즈칸 국립박물관에서

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아남 작가의 특별전 ‘찬란한 빛의 고고학 (Archaeology of Radiant Light)’이 열린다.

이 작가는 한국과 몽골의 자연과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신작 4점과 대표작 6점을 선보인다. 동서양의 세계관과 전통이 하나의 빛으로 연결되는 미디어아트 서사를 담았다.

작품 ‘한동의 빛’은 서로 다른 땅에서 해와 달을 바라보는 한국과 몽골의 자연관을 연결한다.

작품 ‘Beyond the Horizon’을 통해서는 작가의 고향 담양 대나무 숲과 몽골의 산수를 영상으로 교차시키며, 누구나 자신만의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시적 공간을 연출한다.

비엔날레 총괄을 맡은 노정숙 IVCAA 대표는 “13년간 이어온 광주와 몽골 예술계의 신뢰와 교류가 오늘의 출발점을 만들었다”며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국가 간 수평적 연대를 이루고, 동시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묵직한 더블베이스 선율로 만나는 ‘말리 교향곡’

13일 광주시향 오디움콘서트

매혹적인 음색 성민제 협연

더블베이스의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음색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광주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오토움 콘서트’ 두 번째 공연 ‘Double Bass’가 오는 13일 오후 7시, 오후 7시30분 두 차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향의 대표 기획공연인 오토움 콘서트는 올해 ‘악기’를 주제로 펼쳐진다.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지닌 악기를 집중 조명한다.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악기의 구조

와 음악적 역할을 소개해 관객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더블베이스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지휘와 해설은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언이 맡고, 협연자로는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사진)가 무대에 올라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음색을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공연은 쿠세비츠키의 ‘더블베이스 협주곡’으로 협연 시작을 알린다. 더블베이스의 독창적인 음색과 표현력을 극대화한 이 작품은 악기의 기교적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명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코끼리다. 낮고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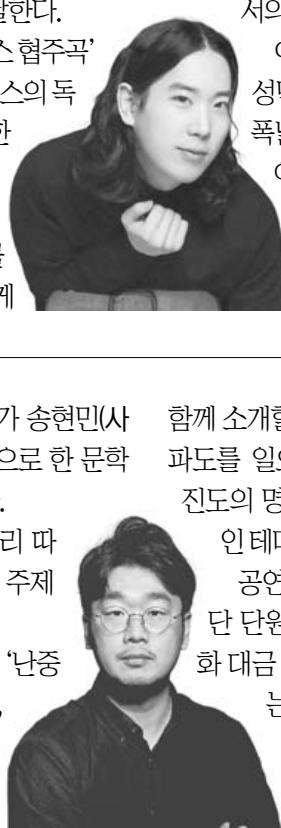
감 있는 음색으로 코끼리의 우아한 움직임을 묘사한다.

공연의 대미는 말리 교향곡 제1번 중 3악장과 2악장으로 꾸며진다. 이 작품은 말리 특유의 서정성과 아이러니, 생동하는 리듬이 교차하는 대규모 교향곡이다. 특히 3악장에서는 더블베이스가 독특한 분위기를 주도하며 시작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장례 행진곡을 연상시키는 변주 속 베이스음역이 그려내는 긴장감과 2악장에

서의 에너지 넘치는 리듬이 돋보인다.

이날 협연을 맡은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는 클래식과 재즈를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주목받아온 연주자다. 이번 무대를 통해 깊이 있는 울림과 매혹적인 음색을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소리 따라 걷는 진도의 기억

남도국악원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오는 11일 송현민 음악평론가

진도의 자연과 예술, 문학 속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내는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진도 옥주골 창작소에서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를 연다. 이번 공연에는 음악평론가 송현민(사진)이 강연자로 나서 진도를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과 예술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날 송현민 평론가는 ‘악기 소리 따라가니, 진도의 문학과 보인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김훈의 ‘자전거 여행’, 이순신의 ‘난중 일기’, 화가 소치 하연의 예술세계, 대금 명인 박종기의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진도의 자연과 역사, 예술이 어우러진 풍경을 국악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바다를 담은 글과 파도를 일으키는 피리 소리’, ‘대금 산조 맛집 진도의 명물, 박종기 대금 상자립’ 등 갑작스런 테마로 공감을 이끌어낸다.

공연에는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창작악단 단원을 지난 김성준 피리 연주자, 류근화 대금 연주자가 무대에 오른다. 두 연주자는 생활과 단소의 중주곡 ‘수룡음’을 비롯해 해설과 어우러진 연주로 풍류의 깊이를 더한다.

/최명진 기자



세계적 실내악단 ‘카메라타 RCO’ 광주 공연

‘2025 ACC 슈퍼클래식’…내달 4일

고전·낭만 전통곡부터 현대곡까지

섬세한 화음으로 생생한 감동 전달

하는 이들은 섬세한 연주와 깊이 있는 해석으로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들이 속한 ‘로열 콘서트트리에바우’는 영국 음악 전문지 도이치 그라모폰이 선정한 세계 1위 오케스트라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전과 낭만을 아우르는 전통 연주곡뿐만 아니라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 까지 폭넓게 연주하며 실내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또한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가 갖는 종주과 유려한 사운드, 실내악단의 섬세한 화음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무대로 생생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오는 11월 내한 공연을 앞둔 로열 콘서트트리에바우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미리 실내악으로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CBS
Media Group™